

#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 및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source-Saving Behavior  
in Primary School Students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 전미영\*\*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계선자\*\*\*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  
Master Jeon, Mi Young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Kye, Sun Ja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source-saving behavior in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o discover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se behaviors most strongl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2011 using a written questionnaire that was completed by 500 primary school students residing in Seoul, South Kore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frequency,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coefficien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the average level of conspicuous consumption was found to be 2.65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전미영(janeeon@hotmail.com)

\*\*\* 교신저자 : 계선자(kyesj@sookmyung.ac.kr)

out of 5 respondents, and of resource-saving behavior to be 3.61 out of 5, indicating a relatively rational score. Next, it was shown that the conspicuous consumption of respondents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variables, such as allowances, family income, socialization process in childhood, family cohesion, and parental child rearing method.

Finally, the greatest influences on respondent's resource-saving behavior was seen to be the child's socialization process in childhood, family cohesion, parental child rearing method, and conspicuous consumption. These variables must therefore all be considered when teaching primary school students and encouraging them to assume rational resource-saving habits in their daily lives.

Key Words : 과시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자원절약행동(Resource-Saving Behavior), 사회화과정(Socialization Process)

## I.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비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해외 상품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초등학생의 소비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뚜렷해짐과 더불어 고급 소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차츰 약화되기 시작했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아동제품들에 대한 판매실적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에 앞 다투어 들어와 성공을 거두고 있고 표면에 나타나는 외형에 부모들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첫아이가 초등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본인 자신도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못한 세대인 30-40대로서 자녀들을 위한 소비에 서슴없이 주머니를 열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고급화, 다양화가 촉진되면서 초등학생들의 소비행태가 과소비, 과시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만10~12세인 초등학생들은 ‘프리틴(preteen)’이란 신 소비 집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나이에 비해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취향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청소년에게 나타난 소비 특성이 이제는 초등학생에게서 나타나면서 특히 가족의 구매의사 결정에도 이들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구매영향력의 증가는 현재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원에 대한 과소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사회화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회화 현상까지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30~40대인 부모들은 경제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빈곤을 모른 채 성장한 신세대에 속하므로 그들 역시 기존세대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가치의식 및 행동을 나타냄에 따라 풍요로운 소비생활로 자원절약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며 개성주의, 합리주의, 편의주의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있다(이지영·이정우, 2002).

이러한 물질의 풍요가 가져온 부모의 소비 지향적 태도는 자녀의 부정적인 소비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즘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정이 늘면서 자녀를 최고로 기르려고 하는 “묻지 마” 소비가 늘면서 자원 낭비를 부모들은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성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과소비도 학습한다. 엄마들의 모임에서도 명품 선물자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초등학생의 53%가 취향보다는 브랜드 소비를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서울신문 2012). 이처럼 초등학생의 명품 소비는 과소비로 이어 지면서 합리적 소비습관을 헤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소비형 생활용품은 과도한 쓰레기의 배출로 이어져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녹색 성장 시대 살아가는 초등학생들이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을 통해 남아 있는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자원을 아껴 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현실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최근 과소비성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미화, 2000; 김홍복, 2001; 강이주, 2007; 홍진희, 2007)가 많았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고, 또한 자원절약에 관한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행동, 자원·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노채영, 1991; 장혜경, 1992; 현금희, 1991)가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희선, 1994; 김정혜, 1995; 천재은, 1999; 유경아, 2007)들이 있으나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과 자원절약행동을 함께한 연구 특히 가족응집력, 부모의 양육태도 등과 같은 가족자원이 초등학생자녀의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과 자원절약행동의 수행정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응집력, 사회화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녹색 성장시대 초등학생들이 자원 절약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에게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화과정을 통해 바른 자원절약 의식을 심어주어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적 기초 자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초등학생의 소비 특성

아동 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은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이 두드러지고 왕성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등을 받아들이는데 큰 차이가 있음을 계선자(1996)는 강조했고, 고화정(2007)도 아동기는 사고력과 판별력을 가지며 내적 통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소비에 대한 교육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 아동소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아동 소비자기능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 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 아동 소비자기능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고 김영옥과 이기춘(1987)은 보고하고 있다. 이기춘(1999)도 자녀의 물질관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특히 어머니의 물질적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성인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하듯 아동소비자 시장도 세분화하여 아동 소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채정숙 외(2008)의 연구에서는 아동소비자들

몇 가지 유형으로 보았는데, 우선 ‘엄마 의존소비자’로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주로 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함께 구매하는 소비자집단이 있고, ‘초보적 소비자’로 직접 소비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영역이나 빈도가 제한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아동 소비자의 대부분이 이 집단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승신(2002)도 오늘날의 아동의 소비 특성은 소득수준향상과 자녀수의 감소로 지위가 향상되며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소비액이 증가되었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잉 보호적이고 지나치게 허용해서 아동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소비를 선택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가게 구매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소비자 역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며, 소비자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특성이라고 하였다.

피아제는 초등학교 아동에 해당하는 6~7세경부터 11~12세경 까지를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라고 설명하면서, 아동기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시작으로 해서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채정숙 외 2008). 또한 개인의 사회화에 있어서도 아동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미경·김영옥(2002)은 강조하면서, 소비에 대한 교육이 소비자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 2. 과시소비성향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구별이 되는데 과소비는 과도한 소비를 뜻하며 과잉소비와 과시소비를 포함한다. 과시소비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소비를 말하며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고

김민정·김성숙(2005)은 정의하였다. 박은아

(1994)·이미용(1991)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부의 전시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과시소비행동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자들의 정의도 조금씩 달리 나타나고 있다.

홍진희(2007)에 의하면 과시소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소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면서 한 집단의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혹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힘이나 용맹성 혹은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나 신체장식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편세린(1997)도 과시소비를 기본적으로 부를 통한 지위 상징성이라는 Veblen의 과시소비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서 신분상승, 지위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남숙(1999)도 지위의 획득이나 유지, 신분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이 자신의 신분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제품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언어와 같은 또 하나의 기호로써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시소비성향의 하위영역으로 유행 및 타인지향적 과시소비, 유명상표선호 과시소비, 수입 및 고가품선호 과시소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행·타인지향성 과시소비로 유행이란 일정한 시기에 상당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선택되어 확산되는 특정한 취향이나 스타일을 말한다(이영희, 2000).

둘째, 유명 상표선호에 의한 과시소비로 소비욕구는 상품 자체의 욕구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대한 욕구, 사회적 지위, 위세, 품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욕구, 타인과 구분된 개성 추구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백경미, 1998). 김홍복(2000)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경우 제품이 지위를 상징한다고 인식하고 제품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가시적 소비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는 수입 및 고가품 선호 과소비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이성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관심으로 고가품을 사려는 경향이 높았다(이영희, 2000). 박경(2007)의 연구에 의하면 고가의 수입의류를 구매하는 소비 집단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 집단들에 비해 학력과 소득수준, 유행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며 정보수집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행동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충동적 구매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2003)도 수입상품 선호도에 의해 과소비성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김인숙 2002)에 의하면 상당수의 어린이가 고가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 상품은 대부분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특별한 날 선물을 받으며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맞벌이로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한두 명의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과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채정숙 외 2008).

### 3. 자원절약행동

물질의 풍요함과 함께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소비자 행동이 요구되고 있고, 자원절약행동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남숙(1994)은 자원절약행동에 대해 보다 나은 생활환

경 조성을 위해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가정 내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 사용, 처분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에너지 소비절약행동, 자원 재활용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원절약과 관련된 관리행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족원의 목표를 만족시키는데 가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관리행동이라고 이지영(2001)은 밝히고 있다. 특히 가정은 가족원이라는 인적 근접환경, 의·식·주의 물적 근접환경 그리고 광역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배분, 조직하는데, 자원절약행동은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와 환경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김외숙 외(1997)의 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절약행동은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요소라고 홍성희 외 4인(2008)은 보고하고 있다. 즉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각 가정에서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창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강조하고 있다. 노영화·강성진(1992)도 자원절약 행동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첫째, 생활용품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둘째, 제품을 소비 혹은 사용할 때 소모되는 전기, 가스 와 같은 에너지 혹은 물과 같은 자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 재활용행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자원절약 행동이란 환경에 대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행동으로 소비자들이 재화의 획득, 사용, 처리 시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경미(2010)는 말하고 있다.

국내의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연구는 행동의 범주를 크게 구매·사용·처분의 세 단계로 구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향이다. 박운아(1997)는 자원절약행동을 구매·사용·처분행동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인 욕구나 시장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의 결과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박영옥(1998)도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자원절약행동, 환경보전행동, 환경보전에의 참여 행동으로 나누고 자신의 사적인 소비행위가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자원절약행동을 함으로써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구매·사용·처분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부임(1998)도 소비자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영역의 행동임을 강조하면서,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중 구매·사용·폐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생태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행동이라 하였다. 그리고 차정은(2000)의 연구에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비의식을 포함하여 환경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원절약행동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비활동이라고 하였다. 김시월(2003)도 소비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을 위하여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의미에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재활용 행동, 절약행동, 리필제품 사용 행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장윤옥·박수경(2004)은 자원절약행동이란 환경에 이로운 혹은 환경에 조화되는 소비행동을 의미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소비단계의 각 시점 별로 자원범주 영역에서 자원소비의 최소화,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생태계 범주영역에서 생태영향의 최소화, 오염범주 영역에서 오염의 최소화를 꾀하는 것으로 하였다.

#### 4.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 및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 (1) 학년

학년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은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한 연구가 많은데, 서정희·석봉화(199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영희(1996)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외국의 상표를 선호하였다. 강이주(2009)의 청소년의 과시소비성향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브랜드지향 과시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승신(1998)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과시소비성향과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변순희(1996)는 초등학생은 학년이 자원절약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고학년일수록 저학년에서부터 실천해온 자원절약행동이 내면화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심지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미(2009)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은 집단이 자원절약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유경아(2007)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자원절약행동의 차이는 3학년, 1학년, 2학년의 순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원절약 행동 수준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 (2) 부모의 학력

부모의 학력은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과시소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용, 1998; 석봉화, 1997). 석봉화(1997)·허병상(199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시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영희(200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2001)·문예진(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 모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은희(199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은 청소년의 과소비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연구로는 유경아(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가계소득

가계의 소득수준과 과소비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과소비를 많이 한다는 견해와 전 소득계층에서 과소비성향이 나타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미용(1991)·황정선(1990)의 연구에서는 과소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편세린(1997)의 연구에서는 본인이 지각하는 가계생활 수준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성향은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유경아(2007)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용돈액수

석봉화(1997), 편세린(1997)은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안영희·박명숙(2000), 김혜인·이승신(2003)등 대부분의 연구결과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양경순(1993)의 연구 결과에서는 비교적 낮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청소년일수록 근검절약의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순(2003)의 연구에서는 용돈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정한 집단이 오히려 과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자유재량 소비액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소비자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행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경아(2007)의 연구에서도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절약 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돈 금액이 적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편세린(1997)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 2) 사회 심리적 변인

### (1) 사회화 과정

오경화(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가족은 소비자 사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비자 행동을 모방하면서 소비행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과소비성향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강희주(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화 과정요인인 또래집단의 영향, 학교소비자교육의 영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곽현정(2002)의 연구에서는 특히 초등학생의 사회화 관련변수 중 준거집단이나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과소비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소비자학습이 이루어지는 소비자사회화 과정에서는 가정, 또래집단, 대중매체, 학교 등의 많은 사회화 작용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가장 근접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족응집력

Olson 등(1983)은 가족 응집성을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여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가족마다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다르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다르다. 이러한 가족원의 응집력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 수준이 적당할 때만이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한다. 따라서 응집성이 매우 낮은 가족은 ‘과잉 분리된 가족’으로 가족의 기능이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가족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이 높을 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높은 반면에 가족이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유대, 심리적 밀착 관계 등의 가족 역동성은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어 아이들의 반응을 유발한다.

국내연구에서는 임성우(2005)는 가족응집력을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 가족응집력으로 나누어 보았고, 김동연(2003)은 가족 상호 간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감으로서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경미(2005)의 연구에서는 대화를 지향하는 정도가 높은 가족일수록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경아(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고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과정이 많을수록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 및 행동이 높다는 결론도 제시하였다.

### (3)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송설희, 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소비성향에 관해 연구한 김부연(1986)의 연구에서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물자절약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 중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자녀를 격려 지도함으로써 물자절약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전동희(1988)의 초등학교 아동의 소비자 절약태도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가 독

립심을 격려해 주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성취욕구를 일깨워 주는 태도를 지닐 때 아동은 자율적으로 소비생활을 합리적으로 실천한다고 하였다.

권미화(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합리적 소비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초등학교의 과시소비성향,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초등학교의 과시소비성향은 배경변인(사회 인구학적, 사회 심리적,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초등학교의 자원절약행동은 배경변인(사회 인구학적, 사회 심리적, 가족응집력,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초등학교의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과시소비성향

과시소비란 제품과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하여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wealth)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의 과시소비 성향은 편세린(1997)·백경미(1995)·이영희(2000)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매우 그렇다’의 1점으로 응답하게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성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 2) 자원절약행동

가정 내 재화와 용역의 구매, 사용, 처분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을 의미 한다.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은 정혜경(1999), 이춘희(1995), 유경아(2007)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성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 3) 사회화 과정

사회화 작용요인인 가족과 학습자간에 실제로 발생하는 사회화 과정으로서 작용요인과 학습자간의 관계형태는 모방, 강화,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분류한다. 초등학생의 소비자사회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김진아(1996), 권미화(2000), 정지영(200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9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 4) 가족응집력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에 있어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심리적으로 결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응집력을 측정하기 문항은 한정화(1997), 김정희(1998), 최정선(1999)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7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예비조사 후 여가에 관한 한 문항을 빼고 6개만 반영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을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 5) 부모양육태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본 연구에서는 민주, 방임, 비일관, 과투자적 태도의 4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

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느끼는 것으로 척도는 이정순(2002), 이수경(2003), 최혜경(200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민주 형, 성취 형, 방임 형, 비일관 형, 과잉 투자형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총24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나 예비조사를 거쳐 성취형 3개 문항은 신뢰도가 떨어져 최종 삭제하였다.

## 3. 조사대상,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초등학생 강남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2011년 5월23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32부의 자료가 배포되었다.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수집된 자료 최종 500부의 자료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alpha$ ,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법(Dundan's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4. 주요변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선행연구(이영희 200, 정지영 2004, 유경아 2007)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항목 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변인별 척도의 문항 신뢰도 계수는 다음의 <표 1> 과 같다.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

변 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사회화 과정	9	.88
가족응집력	6	.82
과시소비성향	15	.91
자원절약행동	구매 시	.80
	사용 시	.78
	처분 시	.89
	(전체)	19
부모양육태도	민주	.86
	방임	.70
	비일관	.73
	과투자	.81
	(전체)	21

## V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은 전체 500명중 4학년 31.2%, 5학년 32.6%, 6학년 36.2%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상 66.4%, 고졸이하 17.4%, 전문대졸 16.2% 로 조사대상자의 부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유형은 사무직이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19.6%, 기타 14.6%, 전문직 7.8%, 서비스직 2.8% 순이다.

초등학생이 응답한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35.6%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3.4%, 700만원 이상 20.8%, 300만원 미만 20.2%로 나타났다. 용돈액수에 대한 조사는 3만원 미만이 82%로 가장 많았고, 5만원 미만 7.6%, 10만원 미만 5.0%, 10만 원 이상 5.4%로 3만원 미만이 응답자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초등학생 과시소비성향과 자원 절약 행동의 일반적 수준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과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수준은 <표 3>과 같다.

과시소비성향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65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소비할 때는 아직 까지 부모들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은 5점 만점에 전체 3.61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구매(3.24), 사용(4.06), 처분(3.70)으로 사용 시 더 절약행동이 더 높았다.

유경아(2007)의 청소년의 자원절약행동 연구에서 구매(2.08), 처분행동(1.97), 사용행동(1.84)의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가정에서 부모의 사회화 과정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표 2) 초등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특성

(N=500)

변인	구분	빈도	%
학년	4학년	156	31.2
	5학년	163	32.6
	6학년	181	36.2
부의 학력	고졸이하	87	17.4
	전문대졸	81	16.2
	4년대졸	179	35.8
	대학원 이상	153	30.6
	전문직	39	7.8
부의 직업	사무직	276	55.2
	서비스직	14	2.8
	자영업	98	19.6
	기타	73	14.6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101	20.2
	3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	178	35.6
	500만 원 이상 700만원 미만	117	23.4
	700만원 이상	104	20.8
용돈액수	3만원 미만	410	82
	5만원 미만	38	7.6
	10만원 미만	25	5
	10만원 이상	27	5.4

(표 3)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 및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수준

(5점 만점)

변인		M	SD
과시소비성향		2.65	.84
자원절약행동	구매 시	3.24	.88
	사용 시	4.06	.91
	처분 시	3.70	.85
	(전체)	3.61	.76

3. 배경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

<표 4>에서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은 전체

적으로 볼 때 학년, 용돈액수, 가계소득, 사회화 과정, 가족응집력,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6학년이 4학년 집단보다 과시소비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표 4〉 배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과시소비 성향

(N=500)

변 수		N	M	SD	F/T	
사회 인구 학적 변인	학년	4학년	156	2.54 A	.88	4.90**
		5학년	163	2.60 B	.79	
		6학년	181	2.81 B	.83	
	용돈 액수	3만원 미만	410	2.59	.82	-3.43**
		3만원 이상	90	2.93	.86	
	부의 학력	고졸이하	87	2.53	.76	2.90
		전문대졸	81	2.72	.76	
		4년대졸	179	2.69	.87	
		대학원 이상	153	2.70	.85	
	가계 소득	300만원 미만	101	2.46 A	.76	4.4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78	2.60 AB	.80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17	2.74 AB	.82	
700만원 이상		104	2.85 B	.94		
사회 심리적 변인	사회화 과정	상	177	2.85 B	.89	10.26***
		중	175	2.64 AB	.74	
		하	148	2.43 A	.83	
	가족 응집력	상	164	2.78 B	.88	5.25**
		중	179	2.69 AB	.75	
		하	157	2.49 A	.86	
부모 양육 태도	민주형	상	158	2.78 B	.95	7.31**
		중	191	2.71 B	.73	
		하	151	2.44 A	.80	
	방임형	상	124	2.85 B	.79	4.73**
		중	216	2.59 A	.79	
		하	160	2.58 A	.92	
	비일관	상	169	2.84 B	.76	6.69**
		중	145	2.61 AB	.81	
		하	186	2.52 A	.90	
	과투자	상	165	2.96 C	.80	23.35***
		중	169	2.63 B	.76	
		하	166	2.37 A	.84	

\* P<.05, \*\*P<.01, \*\*\*P<.001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M+1/2SD이상, 중:M-1/2SD이상~M+1/2SD미만, 하:M-1/2SD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함.

인 소비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용돈액수가 높은 집단이 과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민정(2001)의 연구에 따르면, 월평균 액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충동구매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승신(2003)·장혜경(2005)의 연구에서도 용돈 액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과소비성향이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부분 용돈이 많을수록 과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용돈 역시 과소비성향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찍부터 용돈 사용법과 관리에 대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과 부모와의 학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은희(1999)·최민영(200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이승희(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낮은 연구결과도 있다(김지영, 1998). 반면 류미현·이승신(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성향은 아버지의 학력이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윤석순(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에서 과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700만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과소비성향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 사회 심리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

사회 심리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사회화 과정과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과소비성향이 더 높았다.

과소비성향과 소비자사회화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맞벌이 가정증가와 외동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점에서 내 자녀만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과소비습관 때문으로 사료 된다.

## 3)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

부모양육태도는 그 형태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적인 양육태도에서, 中이상 집단이 下 집단에 비해 과소비 성향이 높았다. 이 결과는 홍진희(2007)의 연구에서 합리형이 上인 집단이 中, 下집단 보다는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에 있어 우월성을 갖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上인 집단이 中, 下 집단보다 과소비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아동들의 무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비 일관적인 양육태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과소비성향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대로 무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과투자 부모의 양육태도인 경우 과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소비함에 있어서 최고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기 않는 부모들의 무절제한 사랑이 과소비성향으로 나타난다는 홍진희(2007)의 선행연구와 일치했다.

## 4. 배경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 행동

<표 5>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 행동의 차이는 학년, 용돈액수, ㄱ, 가계소득 중 용돈액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표 5〉 배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

(N=500)

변 수		N	M	SD	F/T	
사회 인구 학적 변인	학년	4학년	156	3.62	.78	2.28
		5학년	163	3.7	.74	
		6학년	181	3.53	.75	
	용돈액수	3만원 미만	410	3.68	.71	4.66***
		3만원 이상	90	3.28	.87	
	부의 학력	고졸이하	87	3.52	.69	1.09
		전문대졸	81	3.65	.65	
		4년대졸	179	3.61	.81	
		대학원이상	153	3.66	.76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101	3.53	.68	1.2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78	3.69	.7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17	3.55	.80	
700만원 이상		104	3.63	.78		
사회 심리적 변인	사회화 과정	상	170	4.06C	.68	84.55***
		중	182	3.57 B	.62	
		하	148	3.12 A	.67	
	가족 응집력	상	188	4.03C	.71	69.00***
		중	175	3.64 B	.63	
		하	148	3.15 A	.66	
부모의 양육 태도	민주	상	158	4.13 C	.70	115.35***
		중	191	3.62 B	.56	
		하	151	3.05 A	.63	
	방임	상	124	3.55 A	.75	5.28**
		중	216	3.53 A	.70	
		하	160	3.77 B	.81	
	비일관	상	169	3.48 A	.68	13.82***
		중	145	3.48 A	.75	
		하	186	3.84 B	.78	
	과투자	상	165	3.53	.73	2.43
		중	169	3.59	.72	
		하	166	3.71	.82	

\* P<.05, \*\*P<.01, \*\*\*P<.001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M+1/2SD이상, 중:M-1/2SD이상~M+1/2SD미만, 하:M-1/2SD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함.

가 나타났다. 즉 용돈 액수가 적은 집단이 자원 절약 행동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편세린(1997)의 용돈의 액수가 적을수록 자원절약행동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유경아(2007)의 연구에서는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절약행동을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 2) 사회 심리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

사회 심리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 행동의 차이를 볼 때, 사회화 과정이 上, 中, 下 순으로 자원절약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가족응집력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나 학교를 통한 실제로 발생하는 모방, 강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원절약 행동이 높다는 김경미(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간의 정서적 공유가 있고 대화지향형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 일수록 가족 간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수준도 높아 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3)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 행동의 차이를 볼 때, 아동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양육태도 上인 집단일수록 자원절약 소비행동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방임과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上, 中 집단보다 下 집단이 자원절약행동을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영향력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변인 군들(사회인구학적변인, 사회심리적변인, 부모양육태도, 과소비성향)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독립 변인 군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때 1단계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학년, 부의 학력, 소득, 용돈액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사회 심리적 변인인 사회화 과정, 가족응집력을, 3단계에서는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과소비성향 변인을 넣어 분석하였다.

1단계 사회인구학적변인군의 분석결과 학년, 부 학력, 소득은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용돈액수에서만 자원절약행동에 영향력이 나타났고 5%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2단계 사회 심리적 변인에서는, 사회화 과정과 가족응집력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38%의 설명력이 증가함으로 사회 환경적 변인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3단계 양육태도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과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자원절약 행동이 더 합리적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과 소득 등 외형적인 영향보다는 소비행동의 규범적인 측면을 부모로부터 학습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부모의 과소비성향은 지양하고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자의 행동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들이 건전한 소비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부모 자신들이 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녀들이 합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표 6〉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영향력

(N=500)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 인구학적 변인	학년	-.01	-.02	-.05	-.05	-.05	-.05	-.03	-.03
	부의 학력	.05	.08	-.00	-.01	-.00	-.00	.00	.00
	소득	.01	.03	-.01	-.03	-.01	-.03	-.01	-.02
	용돈액수	-.22	-.23***	-.18	-.19***	-.17	-.18***	-.16	-.17***
사회 심리적 변인	소비 사회화			.31	.39***	.24	.30***	.25	.31***
	가족 응집력			.22	.25***	.07	.08	.08	.09†
	양육 태도					.30	.31***	.32	.33***
	민주 방임 비일관 과투자					.04	.05	.04	.05
						-.05	-.05	-.03	-.03
						-.09	-.11**	-.05	-.07†
과시소비성향								-.15	-.17***
상수		3.68***		2.12***		2.00***		2.05***	
F-value		7.56***		52.01***		39.11***		38.75***	
R <sup>2</sup>		.058		.388		.444		.466	
R <sup>2</sup> 증가량		.058		.330		.057		.022	
ad. R <sup>2</sup>		.050		.380		.433		.454	

\*P<.05, \*\*P<.01, \*\*\*P<.001

가변인 기준: 민주=1 기타=0, 방임=1, 기타=0, 비일관=1 기타=0, 과투자=1 기타=0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 및 자원절약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시대 초등학생들이 자원절약을 자발적으로 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1년 5월 서울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되었으며,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최종500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과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과시소비성향은 2.65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자원 절

약행동은 3.61점으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 심리적 변인으로 사회화 과정수준과 가족응집력은 5점 만점에 각각 3.39점, 3.78점으로 평균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5점 만점에 민주적 태도가 3.76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 부모들의 교육,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아 자녀를 독립적이고 합리적 행동을 격려하며 양육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은 학년, 용돈액수, 가계소득, 소비자사회화, 가족응집력, 양육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은 6학년이 4, 5학년보다 그리고 용돈 액수



가 많은 집단이 과소비성향이 더 많았다. 이것은 학년이 높을수록 자유적인 의지로 소비를 하며, 금전적으로 풍부할 때 소비의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가계소득 7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 과소비성향이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이 가장 낮았지만, 3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사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보다 초등학생들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또는 외부 환경이 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사회화 과정과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과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자녀들은 스스로의 독립 결정보다는 부모의 결정을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과투자적 태도에서 가장 높은 과소비성향을 보였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외동아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는 모든 관심과 열정을 자녀에게 쏟으며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셋째,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용돈액수와 소비자사회화, 가족응집력,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화 과정, 가족응집력,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과소비성향 모두가 자원절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볼 때,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릴 때부터 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사회화 과정과 가족응집력이 높을 때 과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일차적 사회화 집단인 가정과 가족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의 양

육태도 또한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이 입증 되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 민주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의 자원절약행동이 더 합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부모들에 대한 자원절약의 식과 행동의 고취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용돈의 액수가 많을 때 자유의지로 소비를 할 가능성크기 때문에, 우선 가정 안에서 부모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건전한 소비습관을 형성을 목표로 하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정이 늘면서 자녀를 최고로 기르고 싶어 하면서 아낌없이 과소비를 하는 부모의 행동도 자제해야 하며, 가족응집력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중요한 가족자원 변인이므로 이에 대한 가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부모교육 내용 중에는 자원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최근 가정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내용 속에서도 자원관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맞벌이 가정, 외동자녀를 가진 부모별로 비교하여 과소비성향을 지양하고, 자녀의 건전한 소비 습관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절약행동에 대해 조사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후속 연구로 사회 심리적 변인 외 친구, 학교, 사회, 대중 매체 등 여러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

고 설문지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부 응답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함으로 실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설문지와 함께 조사하는 설문지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계선자·유경아(2010). 청소년의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과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91-108.
- 2) 계선자(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기 자녀의 소비자 역할수행. 숙명여자대학교 건강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지, 11(2), 47-67.
- 3) 고화정(2007). 어머니의 소비자교육인식 및 소비자기능이 아동의 소비자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광현정(2002). 아동소비자의 소비자행동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초등학교고학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권미화(2000).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의 합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권현지(2008).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과정과 환경 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여고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경미·계선자(2010). 대학생의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과 자원절약행동에 관한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73-191.
- 8) 김민정·김성숙(2005). 소비문화와 트렌드. 서울 : 신정.
- 9) 김인숙(2002). 초등학생어린이의 소비실태. 소비자시대 5월호, 한국소비자원, 4-5.
- 10) 문예진(2009).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과소비성향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경(2007). 청소년의 과시적 소비성향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박나량·손상희(2010). 식품안전교육경험이 불량식품에 대한 아동소비자의 지식, 신념, 태도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47-66.
- 13) 박지영(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과소비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박지현(2009). 부모의 소비자행동이 아동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변순희·계선자(1996). 어머니의 소비자의식과 아동기 자녀의 환경보전 행동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창학 90주년 특집호, 25-40.
- 17) 서울신문(2012). “애플루엔자”에 병드는 아이들: 명품탐닉 부르는 육아 과소비. 2012. 6. 02. 3면.
- 18) 서정희·석봉화(1998).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가치와 소비지향 태도가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21), 131-167.
- 19) 안지혜·서영숙(2006). 아동소비자의 정보탐색활동과 소비자 영향력에 관한연구. 방과후 아동지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회지, 3(1), 51-70
- 20) 오경화(2002). 유아의 소비행동 실태와 부모의 소비행동지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오지현(2006). 대학생의 소비 지향적 태도에 따른 과소비성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유경아·계선자(2007). 청소년의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과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91-108.
- 23)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문사.
- 24) 이석로(1985). 청소년층의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이영희(2000).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관련변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이지영·이정우(2002).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과 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17-134.
- 27) 이형실·이은정(2004). 남녀 중학생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4), 167-176.
- 28) 임성우(2005). 가족응집력과 사회적응력 및 불안과의 관계: 광주소재 초·중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정은영·이은희(2007). 청소년의 인터넷 아이템구매실적 및 충동 과소비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5(8), 105-126.
- 30) 정지영(2004).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과정과 소비자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1) 정진선(2009). 가족응집력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차경옥·최민영(2010). 청소년의 의류구매행동에서 나타난 과소비성향과 동조소비성향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27-45.
- 33) 차정은(2000). 청소년소비자의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4) 채정숙·김정숙·유두련·김정희·박명숙(2008). 소비자 주권시대의 소비자 교육. 서울 : 신정.
- 35) 최정선(1999).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 적응력이 가정관리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최혜경(2005). 유아의 인성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편세린(1997). 청소년의 소비지향적 태도와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8) 한성희·강이주(2009). 청소년소비자의 소비주의성향 및 과소비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39-153.
- 39) 홍성희·김혜연·김성희·윤소영·고성강(2008). 건강 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서울 : 신정.
- 40) 홍진희(2007). 청소년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부모양육 형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8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Univ. of Minesota.
- 42) Tucker, S. M. & Rice A. S.(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투 고 일 : 2013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4일